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FY09 상반기 외국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 하락

- 금감원에 따르면 FY09 상반기 외국 손해보험회사는 17개사로 총자산이 2조 246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, 국내 손해보험시장(19조 7,918억원)의 4.3%를 차지함.
  -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온라인보험 2개사, 법률비용보험 1개사이며, 지점은 원수 5개사, 재보험 7개사, 보증 2개사로 나타남.
  - FY09 상반기 보유보험료 실적은 8,458억원을 기록해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0.3%p 하락함.
  
- FY09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6.0% 감소한 69억원을 기록했으며, 이는 대형지점의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함.
  - FY09 상반기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84억원이 감소한 △180억원을 기록한 반면, 투자영업이익은 41억원 증가한 343억원을 시현함.
  - 투자영업이익은 저금리 지속 및 예금·국공채 위주의 안전자산 운용으로 다소 증가함.
  
-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최근 사업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손해를 상승으로 99.6%를 기록하였으며, 국내 보험회사의 합산비율(101.1%)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접함.
  - 한편, FY09.9월말 지급여력비율은 229.3%로 FY08 213.8%보다 15.5%p 상승해 양호한 수준임.
  
- FY09 상반기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은 2001년 국내진출 이후 처음으로 시장점유율(보유보험료 기준)이 감소하였고, 일부 대형지점의 손해율이 높아져 전체 실적 부진했다는 평가임.

(FY09 상반기 외국 손해보험회사 영업실적,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1팀, 12/3)